

트럼프 “15개국에 관세 서한…9일까지 협상 마무리”

美상무 “관세, 8월1일 발효”…서한 받아도 7월까지 협상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 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

(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으로 미뤄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기념 촬영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참석자들. /연합뉴스

브릭스, 中·러 등 주요국 정상 불참 속 개막

11개 회원국 체제 첫 회의 시진핑, 집권 후 처음 불참

러시아와 중국 등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에서 열렸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다자간 외교 무대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들이 일찌감치 대면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대상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

로 대체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이다. 이스라엘과 무력 분쟁을 겪은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안 대통령, 카타르와 함께 가지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역시 자신을 대신해 대표단을 보냈다.

브릭스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브릭스 회원국의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경제의 약 39% 상당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7의 경우 55%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주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리우 현대미술관을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장으로 다시 정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최근 마련한 4차례의 국제회의 중 이번이 가장 악화한 글로벌 상황에서 열렸다”며 “국제 거버넌스가 21세기 다극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브릭스가 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AFP-로이터통신은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견제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폭우에 범람한 미 텍사스주 샌 가브리엘 강. /연합뉴스

폭우·홍수 대형 인명피해 텍사스 재난지역 선포

어린이 21명 포함 50명 넘게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폭우 및 홍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미 텍사스주 커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리의 용감한 긴급구조요원들이 즉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금 텍사스

스주 커 카운티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적었다.

이어 “많은 생명을 잃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들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州)와 지역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크리스티 뉴 국도안보부 장관이

전날부터 현지에서 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는 지난 4일 폭우로 인해 커 카운티에서 시작돼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며 홍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커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사망자는 59명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는 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 우크라 공습 지속…도네츠크 등 5명 사망

젤렌스키 “드론 등 생산 확대 계약”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6일(현지시간)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항공 폭탄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러시아군

드론이 차량을 공격해 8세 소년이 숨지고 4세 소년과 40세 남성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타스통신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의 즈히토미르, 키로보그라드, 니콜라이에우, 초헤르니고우 등 4개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지난 3일 밤~4일 새벽에도 총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 방산 기업, 유럽 우방국과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 중 하나와 드론 생산을 크게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올해 수십만 대를 추가로 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리남, 독립 50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 선출

시몬스 “우리가 가진 자원 적극 활용”

인구 60만명의 남미 수리남에서 1975년 독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의사당에서 특별 분회의를 열어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71) 국민민주당(NDP) 대표를 5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리남은 의회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의원 51명 중 3분의 2(34명)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직에 오른다.

시몬스 당선인은 이날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을 동원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어떤 직위든, 어떤 정당이든, 어디에 속한 구성원이든 국가를 위한 기여는 무의미



6일(현지시간)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수리남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리남에 여성 대통령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수리남은 보도했다. 취임식은 열흘 뒤인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